

빛의 사람들

보스턴 브래디

2022년 12월 18일

강림절Advent는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민주주의. 그것은 실험적인 시스템이며

결점과 허약함이 있지만 이 시스템이 없이는

국가는 훨씬 더 많이 달라집니다.

--> Pat(여자 이름)1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 와 살았던 여자

그녀의 차는 최근에 깨끗하고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훨씬 낫다." 라고 물었으때, "아니요", 외롭다고 그녀가 말했다.

--> 가족 시스템. 명절모임

종종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부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건강에 해롭지만 조용히 신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우리가 인생에서 의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 진실: 1) 그들은 대체로 눈에 띄지 않음 2) 중독성이 있기 위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깨지기 쉽고 일부는 진정으로 파괴적이지만

그들은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중 정상 근처에

목욕은 이전에 보유한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부드러운 색조나 아름다운 색조로 대림절을 기념하는 동안...

온유하신 거룩하신 예수, 사랑스러운 작은 예수 소년,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지구 - 강림절은 사실상 대림절의 폭력적인 분열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뢰하기로 결정한 시스템.

"예수 시즌(강림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끊임없는 의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킬 제도와 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신지를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그분의 오심으로 뒤집힌 시스템을 식별하십시오.

이사야 9:2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사야 9:2**

그리고 나서 마태는 그를 인용합니다.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마태복음 4:16

이사야는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재앙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 마태는 한 단어를 바꾸기로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빠졌다"는 뜻입니다.

400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서 현장에 오실 즈음에는

영적 침묵, 사람들은 건강하고 진정으로 갠혀 있습니다.

인류가 작동하는 시스템. 세상은 어둡고

탐색하기 어렵고, 어둠은 무겁고, 마비됩니다.

우리가 어둠과 맺는 거래는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와 불을 켜서, 우리가 어떻게 제한되어 있고, 다리를 절고, 가구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빛으로 400년의 어두운 침묵을 깨신 예수님

인간이 구축한 모든 소규모 시스템은

흩어지는 바퀴벌레. 그의 새로운 시스템은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전통과 깊이 사랑받는 체계는 난잡한 것으로 드러난다.

종교 기관과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정부.

세상의 무대에 빛이 터지고 어둠은

극복하고, 숨길 수 없고, 조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고, 보여주시는 스포트라이트(spot light)로 오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 아래 두지 아니하고

대신 스탠드에 올려 놓고 빛을 비춥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마태복음 5:14-16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다룹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우리는 따라야 할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빛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만드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문장 읽기: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집합적으로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높은 관점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거의 놀라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거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세상의 빛.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구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유용하다는 것을 아는 선물

이 아름다운 말을 들어보세요 - 여기 이사야에

세상의 빛이 들어올 때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꿈꾸십시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 60:1-2

일어나다 = 일어나다, 일어서다, 현장에 나오다...타당하다. (반대 무효)

빛나다 = 빛이 되거나 빛이 되다.

지금은 우리가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빛 없이는 추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게 밑에서 산다.

두려움과 절망에 영원히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시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입니다!"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없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양동이와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이들에게 외우게 한 첫 번째 구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빌립보서 2:14

투덜거리거나 다투지 말고 모든 일을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기에서 거래 시스템이 보입니까? 하려는 성향을 버리세요

모든 것을 평가하고 비판하려는 성향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인생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삶,

은혜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참되고 풍성한 삶,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꺼지지 않는 빛을 만들어 냅니다.

논쟁과 불평은 그 빛과 세상의 빛을 무디게 합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광택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안의 빛을 가리는 또 다른 것은 산만함입니다.

잘못된 초점.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함

정말 중요합니다.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우로가 다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5-6

→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의 복음을 전파/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자신의 의제. 우리는 모양을 시도합니다

다른 결함이 있는 타락한 시스템에 복음을 적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사는 세상의 참 빛을 가리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을 멈춘다고 믿지만, 난 그렇지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는 천 가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외로움에 관한 연구.

엄청난 수의 미국인들이 외롭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6%

의 미국인이 "심각한 외로움"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거의 항상". 연구자들이

18-25세의 젊은 사람들을 확대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61%는 비참한 수준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결과:외로움은 우울증, 불안 물질 남용, 심장

질병 및 가정 폭력.

또한 우리에게 외로움은 의심, 경멸, 공격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고립 속으로 더 깊이 고착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외로움은 그보다 더 큰 건강 위험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수반합니다.

흡연 및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만연하고 압도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망적인 무언가의 심연으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잔인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숫자가 더 있습니다.

연구에서:

-심각한 외로움을 보고한 응답자의 36%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은 몇 분 이상 걸렸습니다.

-50%는 누군가가 방법을 물어보기를 바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족 외

-42%는 자신을 돌봐주는 비가족 구성원이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최대 60%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만성적으로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진정으로 서로를 보고 돌보며 세상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빛납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라

우리의 보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요청합니다.